**2021 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국가통계의 이해**

**학 번 : 202135-367895**

**성 명 : 김태정**

**연 락 처 : 010-4172-4516**

o 과제유형 : ( ) 형

o 과 제 명 : 중간과제물 문제

- 이하 과제 작성

**1번문제**

합계 출산율(TFR)은 한 명의 가임기(15세 부터 49세 까지)의 여성이 평생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을 합하여 구한다. 따라서 연령별 출산율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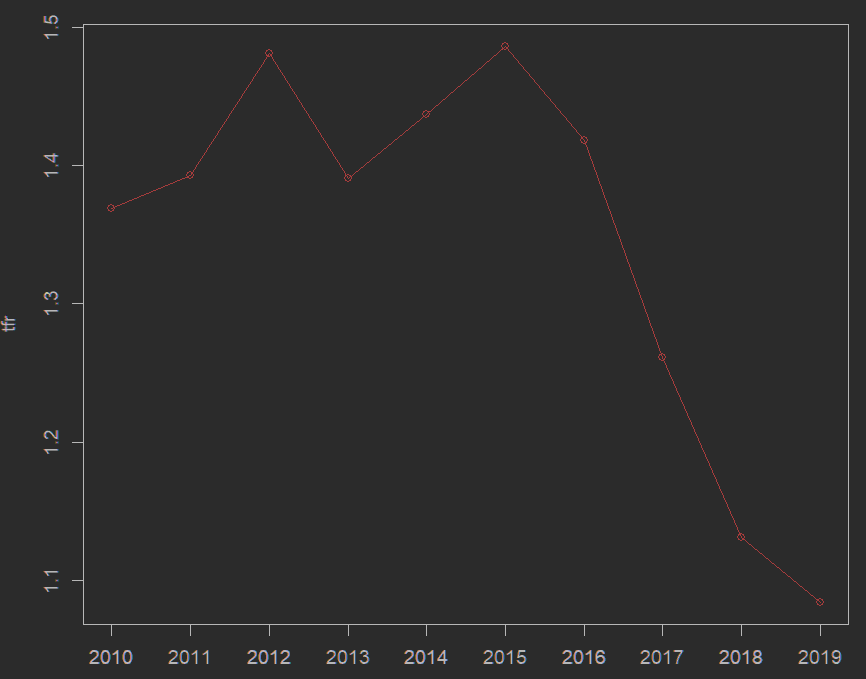
먼저 연령별 출산율(ASFR)을 구하면 아래와 같다. 연령별 출산율은 당해 가임기 여성(15~49)이 나은 출생아 수를 해당 연령별 여자 연앙인구(7월 1일자 인구)로 나눈후 1000을 곱한 값이다.

그 후 구해진 ASFR을 이용하여 합계 출산율을 구한다.

실제로 ASFR은 계급 단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계급은 일반적으로 5인 경우가 많은데 만약 계급 값이 달라진다면 5가 아닌 해당 계급 크기를 곱해 주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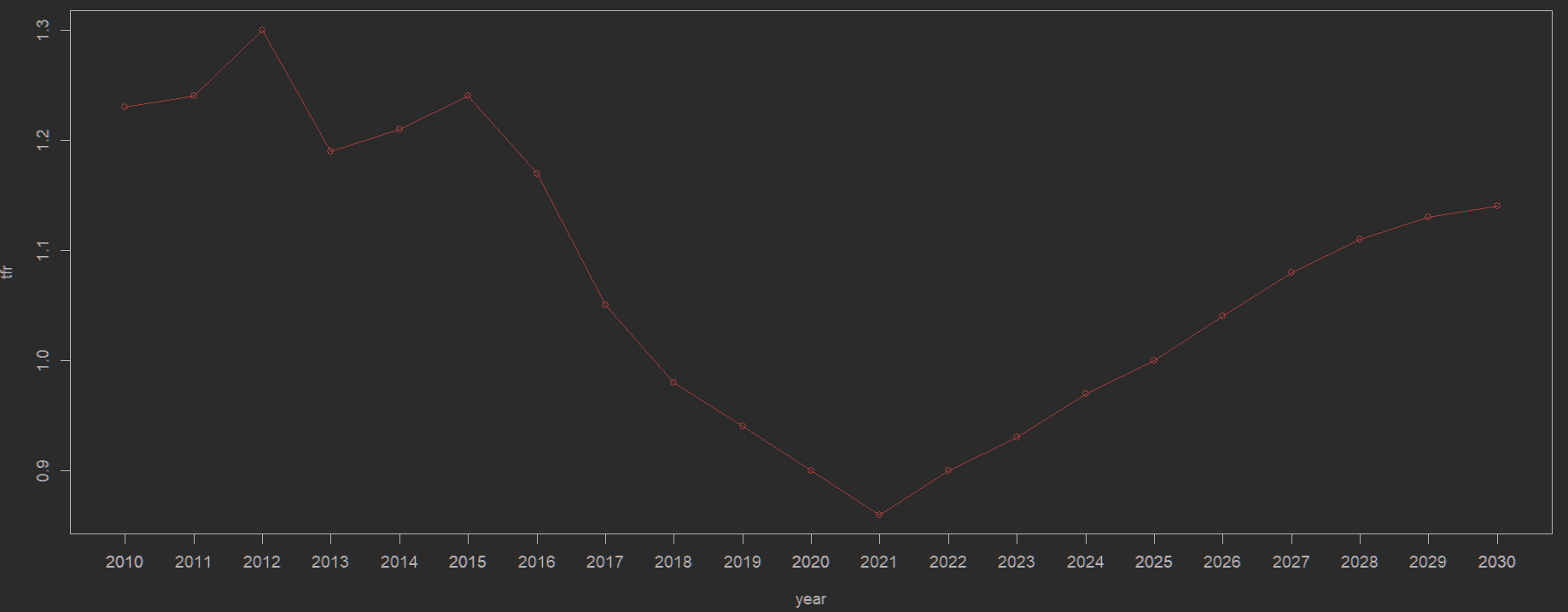
최근 10년간의 합계출산율은 아래와 같다. 차트는 R로 그렸다.



df <- *read.table*('./assignment/question1/data/TFR.csv', sep = ',')  
year <- 2010:2019  
tfr <- df[1,]  
*plot*(year, tfr, type = 'o', col = 'red')  
*axis*(1, at = 2010:2019)

합계출산율을 10년동안 확인해본 결과를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df <- *read.table*(  
 file = './assignment/question1/data/FUTURE\_TOTAL\_FERTILITY\_RATE(2010~2030).csv',  
 sep = ',',  
 header = T,  
 fileEncoding = "utf-8",  
 na.strings = '-',  
)  
year <- 2010:2030  
tfr <- df[1,-1]  
*plot*(year, tfr, type = 'o', col = 'red')  
*axis*(1, at =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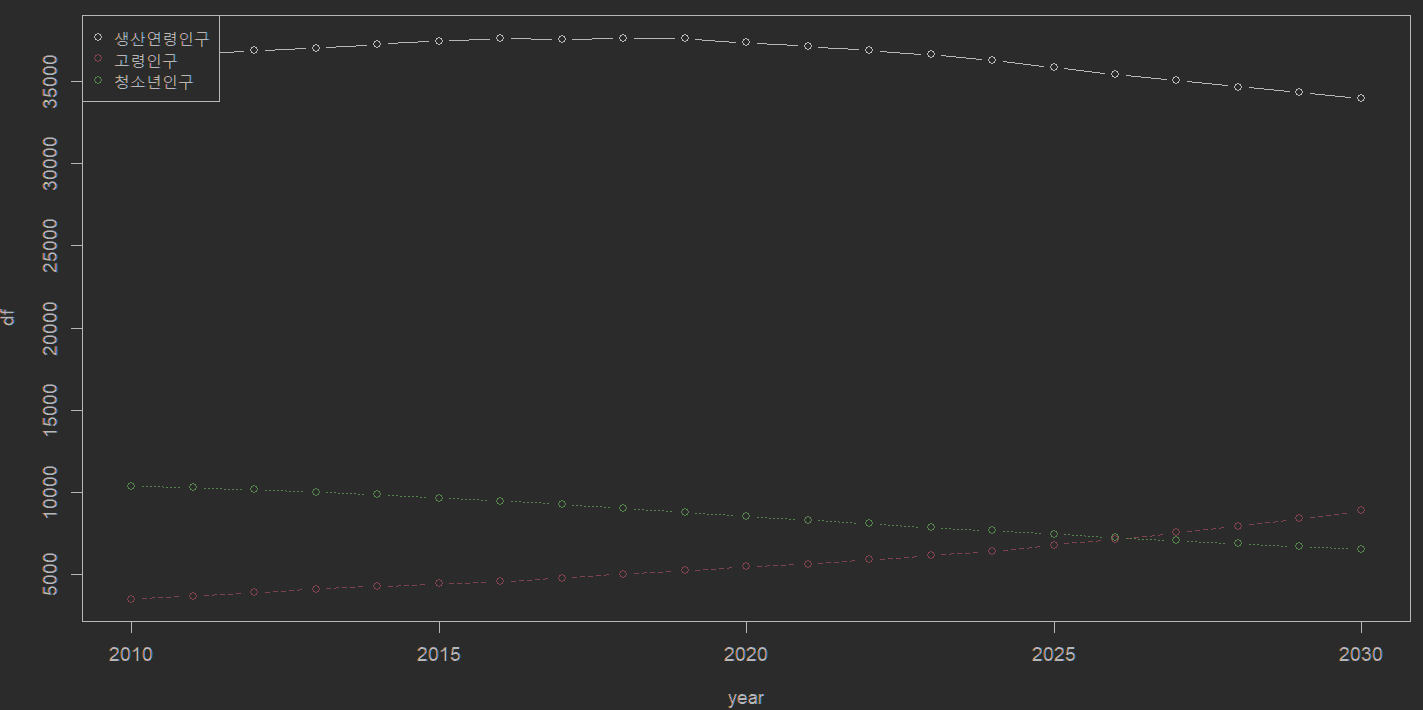


장래 합계출산율은 2017년 까지는 실측치이고 2018년부터 이후는 추정치이다.

장래 합계출산율은 그래프를 보면 2021년에 최저치를 찍고 이후에는 반등할 것이라 기대했었다. 실제로 2021년이 최저치이다. 2019년에 예측한 자료이므로 2021년의 실측치가 0.88이고 추정치가 0.86이므로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추후에는 그래프가 반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인구수가 많은 1990년대생이 가임기에 진입하면서 지속적으로 합계출산율 감소량이 감소하는 모양새에있기에 다시 반등해서 그 이후 1.1을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였는데 이 해석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재기되고 있다.

df <- *read.table*(  
 file = './assignment/question1/data/POPULATION\_ESTIMATE(2010~2030).csv',  
 sep = ',',  
 header = T,  
 na.strings = '-',  
)  
df <- *t*(df[, *c*(-1, -2)])  
colname <- *c*('생산연령인구', '고령인구', '청소년인구')  
*colnames*(df) <- colname  
year <- 2010:2030  
*matplot*(df, x = year, type = "b", pch = 1, col = 1:3)  
*legend*('topleft', legend = colname, pch = 1, col = 1:3)



생산연령별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고 청소년 인구도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다. 고령인구는 증가 추세인데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번문제**

**(1)번문제**

실업률과 고용률은 각각 아래의 산식에 의해서 정의된다.

실업률을 보면 알겠지만 경제활동인구라는 개념을 알아야 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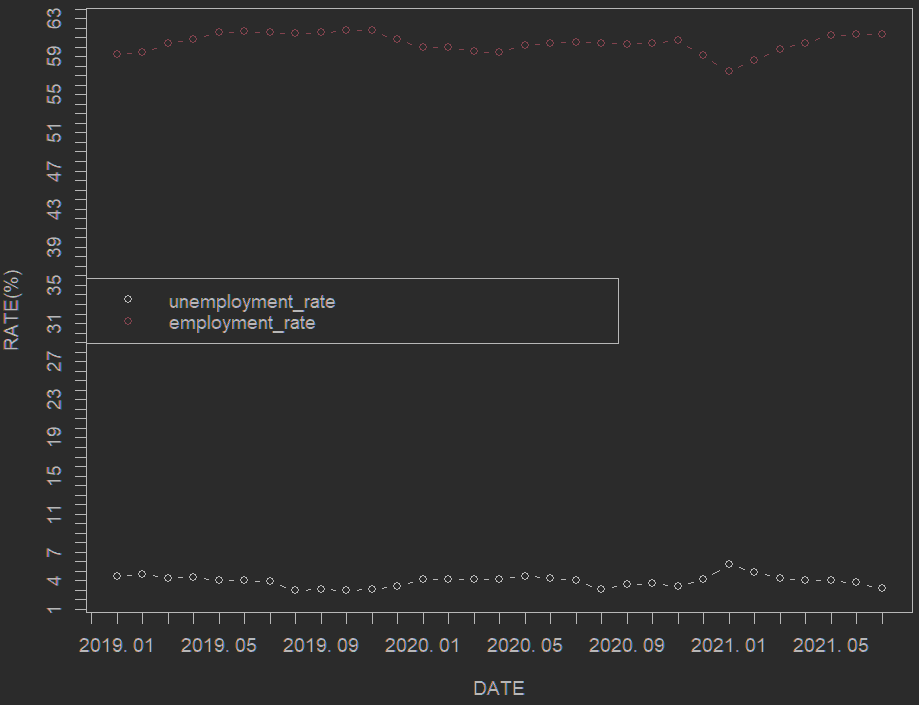
실업률과 고용률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점이 있는데 고용률은 15세 인구 전체를 나타낸다는 점이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만 본다는 것이다. 그러면 실업자에 대한 기준을 봐야 알 수 있다. 실업자의 기준은 통계청 사이트[[1]](#endnote-1)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음
2.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
3. 조사대상기간에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이 대상에 들어가야만 실업자가 되기에 주부나 학생들은 통계에서 제외된다. 즉 고용률의 취지는 15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얼마만큼이 취직이 되었느냐 라는 것을 보는 것이고 실업률은 취직하고 싶은 사람 중에서 얼마만큼 취직이 되었느냐를 보는 것이다. 취지 자체가 다르기에 쓰임새도 다르다. 고용률은 현재 사회에서 얼마만큼의 사람이 일하고있는 지를 기계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실업률은 취업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취직을 못하고 있느냐를 나타낸다. 만약 의지와는 별개로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를 알고 싶다면 고용률이 올바른 통계일 것이다. 가령 여성의 사회진출이 낮은 사회라면 고용률이 낮게 나올 것이다. 하지만 실업률은 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계에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잘 취사선택해야한다.

**(2)번문제**

df <- *read.table*('./assignment/question2/data/ECONOMICALLY\_ACTIVE\_POPULATION.csv',  
 sep = ',',  
 fileEncoding = 'utf-8')[, -1]  
unemployment\_rate <- *t*(df[3, *c*(T, F)])  
employment\_rate <- *t*(df[3, *c*(F, T)])  
value\_range <- *t*(df[1, *c*(F, T)])  
data <- *data.frame*(*cbind*(unemployment\_rate, employment\_rate))  
*colnames*(data) <- *c*('unemployment\_rate', 'employment\_rate')  
*rownames*(data) <- value\_range  
*matplot*(data, type = "b", pch = 1, col = 1:3, ylab = "RATE(%)", xlab = "DATE", labels = F)  
*axis*(side = 2, at = 1:100)  
*axis*(side = 1, at = *seq\_along*(value\_range), value\_range)  
*legend*('left', legend = *c*('unemployment\_rate', 'employment\_rate'), pch = 1, col = 1:3)



※ A4용지 편집 사용

1. http://kostat.go.kr/understand/info/info\_lge/1/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cd=SL4139 [↑](#endnote-ref-1)